

2019년 2월 23일 시행 2019년 서울시 9급 필기시험

한국사 기출해설 (A책형)

해설 - 설민석 교수(단꿈교육)

문 1. 원 간섭기 고려의 국가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려 전체가 몽골의 직할지로 편입되었다.
- ② 정동행성의 승상은 몽골의 다루가치가 전담하였다.
- ③ 관제격하의 일환으로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은 첨의부로 통합되었다.
- ④ 대마리지가 집정대신으로서 국정을 총괄하였다.

1. 정답 ③ 원 간섭기 고려 통치 체제 변화 (고려 - 정치사)

해설 ③ 원 간섭기에 고려 관제가 격하되며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은 첨의부(僉議府)로, 중추원은 밀직사로,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6부는 4사로 통합되었다. 반면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로 개칭되면서 기능이 확대되었다.

오답해설 ① 원에 의하여 동녕부, 쌍성총관부, 탐라총관부가 설치되었으나, 고려 전체가 몽골의 직할지가 된 것은 아니다.

② 원은 일본 정벌을 위하여 고려에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충렬왕을 장관인 승상으로 임명하였다. 충렬왕은 고려군과 몽골군, 한족 군사, 강남군(남송군)을 이끌고 일본 정벌에 나섰다.

④ 6세기 고구려는 대대로가 수상으로서 국정을 총괄하였으나, 연개소문이 집권한 이후로부터 대마리지가 국방과 행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하였다.

문 2. <보기>는 대한제국 시기의 국권 피탈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를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 ㄴ. 일본은 대한제국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내정을 간섭하였다.
- ㄷ. 대한제국은 재정과 외교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두게 되었다.
- ㄹ. 고종은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였다.

① ㄱ → ㄷ → ㄴ → ㄹ ② ㄴ → ㄷ → ㄱ → ㄹ

③ ㄷ → ㄱ → ㄹ → ㄴ ④ ㄹ → ㄷ → ㄱ → ㄴ

2. 정답 ③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근대 - 정치사)

해설 ㄷ.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여 일제는 재정고문으로 메가타를, 외교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파견하였다. 또, 일본은 군부, 내부, 학부, 궁내부 등 각 부에도 고문을 두어 내정을 간섭하는 고문 정치를 시작하였다.

- ㄱ. 1905년 을사늑약의 체결로 일제는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 ㄴ. 을사늑약 체결 이후 고종은 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하는 만국 평화 회의에 이상설·이위중·이준을 특사로 파견하였다.
- ㄷ. 1907년 7월 24일, 한·일 신협약을 체결한 일제는 법령 제정, 행정 처분, 고등 관리의 임명에 대한 승인을 통감으로부터 받도록 하였다. 또한 각 부(部)의 차관 자리에 일본인 관리를 다수 임명하는 차관 정치를 실시하였다.

문 3. <보기>의 밑줄 친 ‘왕’ 대에 이루어진 내용을 옳게 고른 것은?

<보기>

재위 19년에는 금관국주인 김구해가 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와 항복하자 왕은 예로써 대접하고 상등(上等)의 벼슬을 주었으며, 23년에는 처음으로 연호를 칭하여 건원(建元) 원년이라 하였다.

- ㄱ.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로,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 ㄴ. 왕은 연호를 고쳐 ‘개국(開國)’이라 하였으며 ≡국사≡를 편찬토록 하였다.
- ㄷ. 왕호를 ‘성법흥대왕’이라 쓰기도 하였다.
- ㄹ. ‘신라육부’가 새겨진 울진봉평신라비가 세워졌다.
- ㅁ. 연호를 ‘인평(仁平)’으로 고쳤으며 분황사와 영묘사를 창건하였다.

- ① ㄱ, ㄴ ② ㄴ, ㄷ
- ③ ㄷ, ㄹ ④ ㄹ, ㅁ

3. 정답 ③ 신라 법흥왕 (고대 - 정치사)

해설 ㄷ. 제시된 자료에서 ‘금관국주 김구해가 항복’하였다는 내용을 통하여 이 ‘왕’이 신라 법흥왕임을 알 수 있다. 법흥왕은 울주 천전리 비석의 을묘명(乙卯銘) 기록에 성법흥대왕(聖法興太王)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ㄹ. 울진 봉평 신라비는 울진 지역이 신라 영토에 포함되면서 항쟁이 일어나자, 법흥왕을 중심으로 6부 회의의 열여섯 관련자를 처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오답해설 ㄱ. 신라 지증왕은 ‘널리 사방을 망라한다.’는 의미의 신라로 국호를 확정 짓고, 중국식 왕호인 ‘왕(王)’을 사용하였다.

ㄴ. 신라 진흥왕은 개국(開國), 대창(=태창), 홍제(鴻濟)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신라 법흥왕은 건원(建元)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ㅁ. 신라 선덕여왕은 인평(仁平)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분황사 모전 석탑을 건립하고 영묘사를 창건하였다. 또, 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황룡사 구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문 4. 고구려의 대중국투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구려는 요서지역을 선제공격함으로써 수나라를 견제하였다.
- ② 수 양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천리장성을 축조 하였다.
- ③ 을지문덕은 당 태종의 2차 침입을 살수대첩으로 막아냈다.

④ 양만춘은 수나라의 별동대를 안시성에서 격퇴하였다.

4. 정답 ① 7세기 고구려의 대외 관계 (고대 - 정치사)

해설 ① 고구려 영양왕은 598년에 말갈군 1만을 이끌고 전략적 요충지인 요서 지역을 선제공격하였다. 이에 수 문제(文帝)는 수군과 육군 30만명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오답해설 ② 고구려 영류왕은 당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여성~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③ 수 양제(煬帝)는 113만명을 이끌고 친정하여 요동성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고구려가 이를 막아냈다. 이에 우중문·우문술 등에게 30만 별동대를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하게 하였으나 612년 고구려 을지문덕이 살수(청천강)에서 수의 별동대를 격파하였다.

④ 당 태종은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직접 요하를 건너 요동성, 백암성 등을 함락시키고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성주와 백성들의 저항으로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문 5.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조선시대 법령의 기본이 된 법전이다.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 법전이다. (.....) 편제와 내용은 『경제육전』과 같이 6분 방식에 따랐고,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규정 하였다.

① 성종 때 완성되었다.

② 조준이 편찬을 주도하였다.

③ 이·호·예·병·형·공전으로 나뉘어 정리되었다.

④ 세조 때 만세불변의 법전을 만들기 위해 편찬을 시작 하였다.

5. 정답 ② (조선 - 문화사)

해설 ②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은 조선 세조때 최항·한계희·노사신·강희맹·임원준·서거정 등이 주도하여 편찬 작업을 시작하였고, 조선 성종 때 이르러 완성되었다. 조준은 하륜 등과 함께 경제육전을 간행하여 이후 편찬되는 속육전, 육전등록, 그리고 경국대전의 편찬의 영향을 주었다.

문 6.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에 들어있지 않은 조항은?

①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동등권을 갖는다.

② 인천과 부산에 일본공관을 둔다.

③ 일본인 거주지역 내에서의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④ 일본선박의 조선연해 측량을 인정한다.

6. 정답 ② 조·일 수호 조규(근대 - 정치사)

해설 ② '강화도 조약'으로 알려진 조·일 수호 조규(1876)의 주요 내용은 조선은 자주국(청의 종주권 부인), 부산·원산·인천을 개항하고 일본인의 통상을 허가, 해안 측량, 치외법권 등이 있다. 또, 부산 초량항(草梁項)의 일본 공관에서 전통적인 관계를 모두 혁파하고, 조·일 수호 조규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문 7. 영조의 정책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기>
- ㄱ. 형벌 제도를 개선해 가혹한 악형을 없앴다.
 - ㄴ. 서얼 출신의 학자를 검서관에 기용하고 공노비의 해방을 추진하는 등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ㄷ. 균역법을 시행하여 양반과 상민이 똑같이 군포를 부담하게 하였다.
 - ㄹ. 청계천 준설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홍수에 대비하게 하였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7. 정답 ① 조선 영조의 정책(조선 - 정치사)

해설 ㄱ. 조선 영조는 민심 안정을 위하여 압슬형, 자자(刺字)형, 낙형 등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였고, 사형수에 대한 삼복제를 시행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ㄷ. 조선 영조는 청계천이 자주 범람하여 농지와 식수를 더럽히자, 연간 20만여 명을 동원하여 청계천을 정비하였다. 청계천 준설 이후에는 준천사를 설치하여 청계천을 꾸준히 관리하고 백악산·인왕산·목멱산·낙산의 나무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오답해설 ㄴ. 조선 정조는 개혁 정치를 뒷받침 해줄 기구로 규장각을 설치하고 검서관으로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 등의 서얼을 등용하였다. 또한 도망 노비를 찾고 체포해오던 노비추쇄를 폐지하고 공노비 일부를 양민화하여 국가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ㄹ. 균역법은 16개월 마다 2필을 내던 군포를 12개월 마다 1필로 줄여준 것으로 상민들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한 법이었다. 양반과 상민이 군포를 함께 부담하게 된 것은 흥선 대원군 때 실시한 호포제(戶布制)이다.

문 8. 고려시대 불교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태조는 훈요십조에서 전국에 비보사찰을 제한없이 늘려 불국토를 이루도록 당부하였다.
- ② 현종 때에는 거란의 대장경을 수입하여 고려의 독자적인 『초조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완료한 후흥왕사에 보관하였다.
- ③ 광종 대 균여는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천태종을 창시하고,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④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던 향도를 계승하여 신앙의 결속을 다졌으며, 매향 행위를 함으로써 내세의 복을 빌기도 했다.

8. 정답 ④ 고려 시대 불교(고려 - 문화사)

해설 ④ 향도는 불교 신앙 활동을 목적으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공동체 신앙 단체로서 일상 의례와 공동 노동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였다. 이를 계승한 고려 사회는 매향(埋香)을 통하여 미륵불이 이 세상을 구원해줄 것을 기원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오답해설 ① 고려 태조는 훈요 10조에서 도선의 풍수지리설에 따라 건립한 사원 이외에 함부로 사원을 늘리지 말도록 하였다.

- ② 고려 현종은 부처의 힘을 빌어 거란의 침입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초조대장경을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려 성종 때 전래된 송의 개보판(開寶版) 대장경과 고려에 있던 불경들을 바탕으로 대장경 간행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고려 문종 때 이르러 새로 전해진 거란의 대장경을 참고하였다.
- ③ 고려 광종 때 균여는 남악파와 북악파로 나뉘어 대립하던 화엄 사상을 통합하고 귀법사를 창건하여 보현십원가 11수를 지었다.

문 9. 조선시대 중앙통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문관 - 궁중 도서를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학문기관
- ② 사간원 - 국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한 언론기관
- ③ 승정원 - 국왕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비서기관
- ④ 의금부 - 국왕의 명령을 받아 중대한 죄인을 다스리는 사법기관

9. 정답 ① 조선 시대 중앙 통치 체제(조선 - 정치사)

해설 ① 왕의 자문과 경연을 담당하고 경전과 문서들을 보관하고 관리한 것은 홍문관이다. 조선 시대 예문관은 왕의 명령을 문서로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문관 고위 관원은 임금의 교지를 작성하였고, 하위 관원은 회의 자리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문 10. 1960년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귀속재산처리법을 공포하였다.
- ② 한미경제조정협정을 체결하였다.
- ③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④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되었다.

10. 정답 ④ 1960년대 경제 정책(현대 - 경제사)

해설 ④ 1962년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국내 노동력을 바탕으로 의류, 신발, 가발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정유 공장인 울산 정유 공장을 준공하여 석유 화학 공업의 원료원을 확보하였다.

오답해설 ① 광복 이후 미군정은 신한공사를 설립(1946)하여 귀속 재산을 불하하였는데, 이때 처분되지 못한 귀속 재산은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되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1949년 12월 귀속 재산 처리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국·공유 재산으로 지정된 것을 제외한 귀속 재산에 대하여 불하 사업을 추진하였다.

② 1952년 이승만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된 경제원조와 관련하여 양국의 역할과 관계 조정을 위하여 한·미 경제 조정 협정을 체결하였다.

③ 1996년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문 11.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화이관(華夷觀)이라는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사대교린(事大交隣)을 기본정책으로 삼았다.
- ② 북진정책 하에 고구려 고토의 회복을 도모하였다.
- ③ 일본과 여진에 대해서는 무력진압을 위주로 하였다.
- ④ 동남아시아국가와는 교류가 없었다.

11. 정답 ① 조선 전기 대외 관계(조선 - 정치사)

해설 ① 조선 전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편입하여 정권의 정당성과 외교적 안정을 보장받고, 주변의 군소 국가들과는 교린을 통하여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외교를 기본으로 하였다.

오답해설 ②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하여 북진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는 고려 시대이다.

③ 조선 전기에 일본(왜)과 여진에게는 회유책과 강경책을 함께 사용하는 외교 정책을 유지하였다.

④ 조선 전기에는 류큐(오키나와), 자바(인도네시아), 시암(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교역을 하였다.

문 12. <보기>의 밑줄 친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 ㉠을(를) 따진다.
 [때문에] 진실로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넘을 수가 없다. 나는 원컨대, 서쪽 중국 으로부터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지략을 펼쳐서 특별한 공을 세워 스스로 영광스러운 관직에 올라 고관대작의 옷을 갖추어 입고 칼을 차고서 천자의 곁에 출입하면 만족하겠다.

- ① 통일신라기에 성립하였다.
- ② 국학이 설립되면서 폐지되었다.
- ③ 진골은 대아찬 이상의 고위 관등만 받을 수 있었다.
- ④ 혈통에 따른 신분제로서 승진의 상한선을 결정했다.

12. 정답 ④ 골품 제도(고대 - 사회사)

제시된 자료에서 ㉠으로 인하여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넘을 수 없었다는 내용을 통하여 밑줄 친 ㉠이 신라의 신분 제도인 골품 제도임을 알 수 있다.

해설 ④ 골품 제도는 혈연에 따라 사회적인 제약이 가해졌으며, 6두품에 경우는 6관등인 아찬, 5두품은 10관등인 대나마, 4두품은 12관등인 대사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오답해설 ① 골품 제도는 신라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지배 세력을 중앙 체제 안에 편입시키면서 생겨난 제도로써 통일 이전에도 존재하였다.

② 국학은 통일 신라 신문왕 때 설치된 국립 교육 기관이다. 국학이 설치된 이후에도 골품 제도는 계속해서 존재하였다.

③ 진골은 1관등인 이별찬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직에 등용될 경우에 다른 골품과 마찬가지로 17관등인 조위부터 시작하였다.

문 13. <보기>에 해당하는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은정월(殷正月)에 제천행사를 행하면서 국중대회를 열었다.
 -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쳤다.
 - 형이 죽으면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 지방 행정구획으로 사출도가 있었다.

- ① 소와 말을 순장하였고 큰 새의 깃털을 장례에 사용 하였다.
- ② 제천행사는 ‘동맹’이었으며 국동대혈에서의 제사가 있었다.
- ③ 천군이 신성지역인 소도에서 농경의례 등을 올렸다.
- ④ 재해가 발생하면 왕은 교체 혹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13. 정답 ④ 부여(여러 나라의 성장)

제시된 자료에서 은정월(殷正月, 12월)에 제천 행사를 지내고,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소를 죽여 발굽으로 길흉을 점치거나 형사취수제, 1책 12벌의 풍습이 있었으며, 지방 행정 구획으로 사출도가 있었다는 것을 통하여 자료에서 설명하는 국가가 부여임을 알 수 있다.

해설 ④ 부여는 왕권이 강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해가 들어 흉년이 들면 왕에게 책임을 물어 왕을 교체 하거나 죽이기도 하였다.

오답해설

- ① 소와 말을 순장하거나 큰 새의 깃털을 장례에 사용한 국가는 진한이다.
- ②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내며 국동대혈에 제사를 지낸 국가는 고구려이다.
- ③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신성지역인 소도를 주관한 국가는 삼한이다.

문 14. 고려시대 무신정권기 정치와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신집권기 초반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상장군·대장군의 회의기관이었던 기존의 회의체 중방을 권력 기구로 삼았다.
- ② 최충헌은 군국의 정사를 관장하는 교정도감을 설치 했고, 최우는 정방과 서방을 사저에 설치 했다.
- ③ 김보당과 조위충은 최충헌의 집권에 항거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 ④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지어 고려가 천손의 후예인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표현했다.

14. 정답 ③ 무신 집권기(고려 - 통합형)

해설 ③ 김보당과 조위충이 무신 정권에 항거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은 이의방 집권기이다. 최충헌 집권기에는 만적의 난이 일어났다.

오답해설 ① 무신 집권기 초반에 집권한 무신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하여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였다.

- ② 최충헌은 중방을 폐지하고 무신 정권기 최고 기구로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최충헌 이후 집권한 최우는 모든 관료의 인사 행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택에 정방을 두었고, 문신 숙위 기관으로 서방을 설치하였다.
- ④ 무신 집권기 때 이규보는 고구려 시조 주몽에 대하여 쓴 서사시인 『동명왕편』을 지었다.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통하여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자부심을 전하고자 하였다.

문 15. <보기>의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했을 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ㄱ.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ㄴ. 좌·우 합작 위원회, ‘좌·우 합작 7원칙’에 합의
 ㄷ. 이승만, 정읍 발언에서 남한만의 정부 수립 주장
 ㄹ. 유엔 소총회,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 실시 결의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15. 정답 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현대 - 정치사)

해설 ㄷ. 1946년 5월에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자 다음달인 6월에 이승만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읍 발언이 있었다.
 ㄴ.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론이 제기되자 1946년 7월에 김규식·여운형 등의 중도 세력 등이 좌우 합작 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이들이 1946년 10월에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ㄱ. 1947년 5월에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임시 정부 수립에 참여할 단체 문제로 미·소 양국이 대립하였다. 결국 1947년 10월에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도 결렬되어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국제 연합(UN)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ㄹ. 1947년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 결정되었으나 소련의 반대로 유엔 총회의 결의안이 시행되지 못하여 19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를 열어 선거가 가능한 지역(남한)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하였다.
 ① 따라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건은 1947년 10월에 있었던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ㄱ)이다.

문 16. <보기> 자료의 민족 운동가들이 추진한 독립 운동에 대한 서술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8월 초에 여러 형제분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비밀리에 땅과 집을 파는데, 여러 집을 한꺼번에 처분하니 얼마나 어려우ரிய요. 그때만 해도 여러 형제분 집은 예전 대갓집이 그렇듯이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고 (.....) 우리 집 어른(이회영)은 옛날 범절을 따지지 않고 위아래 구분 없이 뜻만 같으면 악수하여 동지로 대접하였다. (.....)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경술년(1910) 12월 30일에 큰집, 작은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
 - 이은숙, 『민족 운동가 아내의 수기, 서간도 시종기』 -

- ① 신흥강습소를 만들어 민족 교육과 독립군 양성을 추진하였다.
- ②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등의 독립운동 기지를 설립하였다.
- ③ 간민회를 기반으로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등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④ 나라를 되찾은 후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전국적인 의병 봉기를 준비하였다.

16. 정답 ① 이회영·이시영 형제의 독립 운동(일제 강점기 - 정치사)

제시된 자료에서 우리집 어른(이회영)이 집의 재산을 팔아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로 들어갔다는 내용을 통하여 서간도에서 독립 운동을 전개한 이회영·이시영 형제들의 독립 운동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해설 ① 이회영·이시영 6형제는 서간도로 이주하여 삼원보를 중심으로 독립 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이후 1911년에 신흥강습소를 설치하여 독립군 양성을 추진하였다. 신흥강습소는 1913년에 신흥 중학교로 1919년에는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하였다.

오답해설 ② 대한 광복군 정부와 대한 국민 의회는 연해주 지역에서 조직된 독립 운동 단체이다.

③ 간민회는 북간도에서 조직된 독립 운동 단체이다. 북간도에는 서전 서숙과 명동 학교 등의 교육 기관도 설치되었다.

④ 고종을 복위시키고자하는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활동한 단체는 국내에서 활동한 독립 의군부이다.

문 17. 대한제국의 근대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② 서북철도국을 설치해 경의철도 부설사업을 추진했다.
- ③ 우편학당, 전무학당, 상공업학교, 의학교, 광산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 ④ 고종 대에 비변사를 설치하여 근대화사업 전반을 관장하였다.

17. 정답 ④ 대한 제국의 근대화 사업(근대 - 정치사)

해설 ④ 비변사는 16세기 중종 때 삼포왜란 이후에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며, 명종 때 을묘왜변이 일어나면서 상설 기구화되었고,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최고 기구화되었다. 비변사는 이후 19세기에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 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에 폐지되었다.

오답해설 ① 대한 제국은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근대적 토지 대장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지계 발급을 통하여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대한 제국은 프랑스로부터 반환된 경의선 부설권을 대한철도회사에 특허하였다. 그러나 대한철도회사도 자본이 부족하여 철도를 부설할 수 없게 되자 궁내부 직영으로 서북철도국을 두어 경의선 부설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결국 일본에게 경의선 부설권을 물려주었다.

③ 대한 제국은 상공업 진흥 정책에 따라 실업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에 상공 학교(농·상 교육), 우무 학당(우편 사무), 전무 학당(체신 교육), 광무 학교(광업 교육) 등의 학교를 설립하였다.

문 18. <보기>에 나열된 고려시대의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거란의 소손녕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하여, 서희가 외교담판으로 거란군의 철수를 이끌어냈다.

ㄴ. 노비의 신분을 조사해 본래 양인인 사람들을 환속 시켰다.

ㄷ. 송나라 사신 서공이 고려를 방문하고 『고려도경』을 지었다.

ㄹ.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실직(實職)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에게 처음 지급하였다.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ㄷ → ㄴ → ㄹ
- ③ ㄴ → ㄱ → ㄷ → ㄹ
- ④ ㄴ → ㄹ → ㄱ → ㄷ

18. 정답 ④ 고려 시대의 사건(고려 - 정치사)

해설 ㄴ. 고려는 10세기 중반 광종 때 노비의 신분을 조사하여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다시 양민으로 풀어주는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ㄷ. 고려는 10세기 후반 경종 때 인품과 관품(4색 공복)을 기준으로 하여 전·현직 관리에게 모두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시정 전시과를 실시하였다.

ㄱ. 고려는 10세기 후반 성종 때 거란의 소손녕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공격하자 서희가 소손녕과 외교 담판을 벌여 거란군을 철수시키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ㄴ. 12세기 중반 고려 인종 때 사신으로 온 송나라의 서긍은 고려의 여러 가지 실정을 저술한 『고려도경』을 지었다.

문 19. <보기>는 1927년에 창립한 어느 단체의 강령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우리는 정치·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1.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 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였다.
- ② 일제에 의해 조작된 소위 105인 사건으로 탄압을 받았다.
- ③ 전국에 140여 개소의 지회와 약 4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 ④ 1929년에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민중대회의 개최를 계획했다.

19. 정답 ② 신간회(일제 강점기 - 사회사)

제시된 자료 ‘정치적·경제적 각성 촉구’, ‘단결을 공고히’, ‘기회주의 배격’의 내용은 1927년에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조직된 신간회의 강령이다.

해설 ② 신간회는 1931년에 내부 지도층의 분열과 코민테른의 지시로 해소하였다.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탄압을 받아 강제 해산된 단체는 1907년에 조직되어 1911년까지 활동한 신민회이다.

오답해설 ①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일부가 연합한 좌우 합작 단체이다. ③ 신간회는 전국에 140여 개의 지회를 구성하였고, 만주와 일본에서도 조직되었다. 당시 신간회의 회원은 2~4만명 정도였다.

④ 신간회는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고, 민중 대회를 계획하였다.

문 20. 조선 초기의 과전(科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과전은 성종 때까지 경기도에 한정되었다.
- ② 현직 관리에게 소유권과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였다.
- ③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에게 모두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④ 과전에 대해서 상속권을 인정해 주었다.

20. 정답 ③ 과전(조선 - 경제사)

해설 ③ 과전은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할 경우에는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공신전·훈양전·수신전 등의 세습할 수 있는 토지도 있었다.

오답해설 ① 과전법에 따라서 과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 토지는 경기도로 한정하였으나 태종 때 사전 억압

시책의 일환으로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땅을 과전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② 과전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수조권만 지급한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관리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지급하지 않았다.

④ 과전은 품계에 따라 지급된 토지로 원칙적으로 세습이 불가하였다.

공무원저널